

KAIST Student Investment Fund

10th Fellow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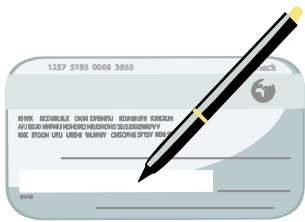
- 2008년 2월 15일 KSIF 출범 / 지도교수 김동석
- 학교 기금 10억원을 가지고 실제 투자 훈련
- 국내 최초로 출범한 학생실전투자펀드
- KAIST 경영대학 MBA 금융대학원의 지원을 받는 정규 프로그램
-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투자기법을 실제 자산운용에 적용

KSIF Teams



Recruiting

- 지원대상: KAIST 전 과정 석/박사, MBA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 활동기간: 2013년 1월 ~ 2014년 1월
(13학번 금융MBA 학생은 해외연수 출국 전까지)
- 지원요건
 - 한국어에 능통하며 향후 금융업에 종사할 분
 - 금요일 오후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정기회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분
- 지원서류
 - 이력서 1부. (자유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지원일정
 - 지원기간: 2012년 12월 20일 마감
 - 서류전형결과 발표: 2012년 12월 22일 오후 3시
 - 면접: 2012년 12월 27일 오후 2~6시 예정
 - 최종 합격자는 1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에 있는 주간 회의에 참석해야함
- 지원서 접수: ksif@business.kaist.ac.kr (이메일 접수)



활 동

- 10기 활동기간: 2013년 1월 ~ 2014년 1월 (금융MBA 학생은 해외연수 출국 전까지 활동)
- 매주 금요일 KSIF 정기회의 참석 (방학 중에는 격주로 금요일에 회의)
- 활동종료 후 수료증 수여
- 우수 펠로우에게는 상패 수여



정 기 행사

- 워크숍 (2013년 여름 예정)
- 연간보고회의 (2013년 9월 예정)
 - 경영대학장, 금융대학원장, 한국투자증권사장, 우리선물 사장 등 KSIF 운영위원회에게 운용성과보고

▶ 윤국주 (금융MBA / KSIF 8기 활동)

KAIST Business school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 KSIF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자전략을 세우기 위해 끝없이 조사하고 선택된 전략에 대한 인내의 백테스트 기간, 첫 투자할 때의 손떨림, 예측이 맞을 때의 기쁨, 틀릴 때의 안타까움과 긴 회의시간, 폭락할 때의 두려움 등 글로만 읽었던 것들을 실제로 체험해 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곳이 KSIF이었습니다. 제 앞으로의 금융인 커리어에 단단한 초석을 쌓게 해준 KSIF와, 그 동안 함께한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 장익제 (금융MBA / KSIF 8기 활동)

실전 투자 경험 한 번 없이 막연한 생각만으로 KSIF의 면접을 보던 게 엇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1년 전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운용 1팀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경험하면서 막연한 생각과 이론 만으로는 절대 접하지 못했을 문제들과 마주하면서, 저희 나름의 답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들이 실제 업계로 진출하려고 준비하는 지금 많은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박현성 (경영공학 석사 / KSIF 8기 활동)

투자전략에 관한 논문을 다양하게 접한다 할지라도 직접 그러한 전략을 구사해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마주하던 논문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 준 곳이 바로 KSIF입니다. 학계의 연구를 시장에서 테스트 해보고, 미국과 다른 한국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전략을 수정하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아가는 일은 매우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돈독해진 우정, 더불어 얻게 된 강인한 체력은 보너스 아닐까요?^^

Supporting Companies

